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탄자니아와 잔지바르 대선 및 총선일인 10월 28일이 가까이 다가옴에 따라 여당인 CCM당과 야당인 ACT당 모두 선거열기가 뜨거워지고 있고, 거리에는 선거 운동원들을 태운 차량들이 폭주하며 거리에서 위협이 되고, 그들의 함성소리가 메아리치곤 합니다. 선거일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과열되고 선거 운동원들 사이에 충돌로 인한 사고도 염려되는데 아무런 사고 없이 선거가 끝나기를 기도해 주세요.

< 에버그린 학교 사역 > 정부 지시에 의해 6월 29일 학교를 개학하면서 학교에 모여 공부하는 아이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을까 노심초사 걱정되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손씻기를 잘하도록 수도꼭지를 4개를 더 설치작업 하는 등 대비를 하였었는데 다행히 저희가 염려하던 것과 반대로 코로나가 거의 없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어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걸리지 않고 공부하고 있어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주신 은혜에 감사 드립니다. 4학년과 6학년 학생들은 정부 국가시험을 9월에 볼 것으로 예상되어, 3개월 공부하고 시험을 보아야 하는 아이들의 심적 부담이 크고 학교에서도 책임이 무거워 염려를 많이 했는데 국가시험이 12월에 보게 되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집중력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에 개학할 당시만 해도 학부모들의 어려운 생활고 때문에 정부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의 학비를 면제해 주라 지시를 해서 건물 렌트비와 선생님들의 봉급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귀하신 동역자님들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어 감사 드립니다.

< 성경대학 > 코로나-19 때문에 중단했던 성경대학을 주님의 은혜로 7월 중순에 다시 개강을 하여 지금 4명의 학생들이 첫 번째 덤을 마치고 둘째 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10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시작했지만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중도에 학생들이 포기하여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생계와 공부를 겸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남은 학생들이 열정이 식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 키딩니 유치원 건축 > 2019년 말부터 시작하여 진행해 오던 키딩니 유치원 건축이 우기철과 코로나-19로 인하여 잠시 멈추어졌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은 마무리 되었고, 이제 전기, 수도시설, 조경, 비품구입 등을 남겨놓고 있는데 예산이 총당 되는대로 마무리하여 내년 1월에 개원을 하려고 합니다. 키딩니 유치원은 그 지역 발전과 복음을 위해 건축한 유치원입니다. 유치원 교육을 무료로 하기로 지역주민들과 약속하였기에 아이들 1:1 후원에 필요한 재정공급과 또 스토리텔링으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컴퓨터 교육 > 학교가 개학함에 따라 코로나-19 때문에 쉬고 있던 정부학교 5,6학년 컴퓨터 수업을 다시 시작하였는데, 키보재 학교뿐만 아니라, 이웃 학교에서 컴퓨터를 가르치던 선교사님이 건강 때문에 한국에 가서서 키딩니 학교 교육까지 맡아 추가로 가르쳐 왔는데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 도둑 소식 > 지난 9월 16일 저희가 사역을 나가 집을 비운 사이 낮 시간에 저희 집에 도둑이 루바로 된 현관 옆벽을 부수고 문들을 뜯고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랩톱 컴퓨터와 사역이 담긴 외장하드를 다 잃어버렸고, 함께 협력하던 필리핀 선교사는 그 동안 아껴 모은 현금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침에 나갔다가 소식 듣고 들어오자마자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들이 와서 현장 확인을 하고 갔는데 이웃집에 설치했던 CCTV를 확인해서 범인 5명중 2명을 잡았는데 나머지 3명은 육지로 도망갔다 합니다. 대낮에 사람이 통행하는 길옆에 있는 집인데도 이런 일을 당해 충격이 크지만 그래도 우리가 집에 없는 사이 도둑이 들어와서 신체적으로 다치지 않는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깊이 생각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 보물을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라 둘째 도둑은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 주님 오실 날도 언제인지 모르니 깨어 있어 준비하라는 생각입니다.

< 행복 나눔 > 에버그린 학교 학부모들 대부분이 호텔에서 일용직으로 청소일 등 허드레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관광객들이 오지않으니 호텔들이 문을 닫아서 일자리를 잃고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60여 가정을 택하여 쌀과 식료품을 나눠 주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이슬람 가정들이었는데 이번 행복나눔의 후원은 은혜한인교회 성도님들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뜻을 전달하고 기도로 시작하여 진행하였고 모든 학부모들이 서투른 한국말이지만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며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표하여 저희들도 가슴 뭉클했습니다. 귀한 사랑을 보내주신 Group-2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송규영 오효숙선교사--

- < 기도제목 >
4. 에버그린 학교 4,6학년 학생들이 집중력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5. 남은 성경대학 학생들이 생계와 공부를 겸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열정이 식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6. 키딩니 학교 책걸상 및 비품 구입, 조경공사, 전기, 수도공사 등 필요한 재정 공급과 믿음으로 가르칠 교사를 보내 주시기를, 또 스토리텔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7. 아프리카에 코로나19 전염병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또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도록...
 8. 요양원에 계신 어머님 영육에 강건 하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탄자니아 잔지바르에서 송규영,오효숙/민석,은석 선교사 드림--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지쳐가는 지금 이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일군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안녕하세요 필리핀 김인수 선교사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지쳐가는 지금 이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일군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한번 더 깨닫게 됩니다. 이곳 필리핀에서는 코로나의 두려움과 불편함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은혜한인교회의 행복나눔이 이곳까지 전하여 진 것이 두 달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행복나눔 6차, 7차, 8차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복나눔의 소식을 들은 한국교회들과 개인들의 후원과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행복나눔이 희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콩 한쪽이라도 나누던 한국인들의 훌륭한 문화를 사용하여 세계선교를 이끄시던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은혜한인교회를 세계선교마무리를 위하여 크게 사용하시기를 기도해봅니다. 매일 2명의 사역자가 오전 시간을 저희 집에서 함께 합니다. 3년 가까운 시간을 훈련시키며 동고동락 하였습니다. 많이 부족한 상태였지만 함께 사역지에 교회를 세웠고 아직까지 큰 어려움 없이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보수도 줄 수 없지만 이들은 오후 시간에 한국인들을 상대로 영어 튜터링을 하면서 나머지 시간에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교회를 단독으로 사역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사람을 세우고 훈련하고 교육하여 사역자로 준비되니 하나님께서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2번째 교회 개척 및 건축에 대한 것들을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적은 돈으로 상황과 형편에 맞게 건축되어질 교회이지만 부족한 부분들은 그들이 성장해가며 채우고 새롭게 만들어야 할 그들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선교사의 교회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들의 교회로 선교사는 오로지 돕는 역할만 할 것입니다. 집 앞마당에 여러 가지 채소를 심어 가꾸고 있습니다. 깻잎, 상추, 미나리, 파파야 등을 심어 매일 물을 주고 풀을 제거해주면서 머지않은 장래에 현지인과 함께하는 농장을 꿈꿔봅니다. 무엇이든지 생각하고 준비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시작 할 수 있는 이곳이 선교지이고 그곳에 살고 있는 선교사님에 감사하는 오늘입니다. 감사합니다.

--필리핀김인수선교사--



광고

Amazon을 통해 GMI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Amazon account가 있으신 분들은 smile.amazon.com 으로 로그인 하신 후, "Grace Korea Church (Fullerton)"를 찾아 설정하시면, 구입하는 금액의 0.5%가 선교후원금으로 적립되게 됩니다. smile.amazon.com/ch/95-3861464.

미얀마는 외국인의 직접전도가 불법이기에 현지인을 잘 양육하여복음을전할수 있는 교육과환경을만들어주는것이..

매일 기도의 시간이늘
어가고 있는 날들입니
다

저희 가정의 부족함을
아시기에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복음이 더
욱 퍼져가며 심어지도
록 기도합니다

미얀마
곽현섭 업성화 선교사
(1기) 올림

불신자 대상의 개척교회

할렐루야

신의
첫 대표 기도를 드리는
청년

부모님을 모두 일찍 여의고
언니와 동생들과 함께
할머니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생활..
죽을지 못한 생활 형편 때문에
언니와 함께 생활비를 담당하고 있는 청년

신교센터에서 생활하며
모든일에 솔선수범으로 열심히 청년
2단계 전도팀 양성 성경공부 심화 과정을
열심히 배우고 있는 청년

주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심어지고 있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 삼으소서 ...

10월 28일 저녁

전도 대상자 불신자 청년들이
성경 익숙해지기 단계별 훈련에 의해
구약성경, 신약성경 순서를
암송하는 모습

생명의 말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의
순서를
시험보는 청년들

우상으로 굳어진
마음을
부수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미얀마 선교행진

감사드립니다

기도 동역자님의 기도와 사랑의 헌신 덕분에
전도학교 사설의 1년 임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신자 청년들이 더욱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주님을 만나도록, 매일 이루어지는 성경 교육에
전심을 다 하겠습니다. 걸으면 주변 신변 안전을 위해
(엘로우 K 뷰티 학원) 이란 이름으로 운영되며
실질적으로 전도자를 양성하는 < 전도학교 > 로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귀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미얀마 선교행진

미얀마는
외국인의 직접 전도가 불법이기에
선교사는
현지인을 잘 양육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육과 환경을 만들어
선교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도록
모든 것을 담당해 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전도자가 생활해 가는
자원의 힘이 없다면
전도자의 삶이 힘들게 되고
선교의 비결은 통치기 쇠약합니다.
전문인 전도자 양성학교는
전문 기술을 통하여 전도대상자를 향한
최종점을 개발하고 새 생명을 얻게하는
복음의 사랑을 감당 할 수 있도록
계좌를 세우는 학교입니다.

전문인 전도자 양성을 위한
전도 학교

한손엔 육신에 필요한빵을들고 한손엔 복음과 말씀을들고 주님사랑을전하고 있습니다

구제품(마스크,밀가루,식용류쌀,국수,과일)등등을 나누워주며 복음을전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구입 여유가없어 계속
장시간 쓰던마스크를 써서 확진 되고 있는실정입니다 일이 없어 식량구입이 어려운 여러 선교지를 방문하며 주님께
사랑을 나누워주고 있습니다. 현실이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차라리 복음전도에 좋은기회로 삼고 한손엔 육신에 필요
한빵을들고 한손엔 복음과 말씀을들고 주님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교지 현실에 가장 시급한 빵과 구제품을 계속해
서 구입하여 복음과 함께 전할수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찮으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1. 선교 팀장으로 섬기시는 안영식목사님의사모님, 안경진사모님이 유방암진단을 받아 항암치료를 받게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을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2. 사할린김성민 김지경선교사님이 코로나 양성반응이나와서병원에입원중입니다 특별히 김지경사선교사님이 폐기는
이 많이악해져서 힘들어하신다고합니다.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3. 터키양창모 선교사님이 파킨즈병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바랍니다
4. 선떼제스베르그 조경호선교사님의 뇌종양 수술이 하나님의은혜가운데 잘마치고 되원하셨습니다
끝까지완쾌될수있도록계속 기도해주시기바랍니다
5. 터키 최지섭 이해영선교사-조직검사 결과 왼쪽 엉치뼈로 암이 전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제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병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과 힘이 생겨나길 기도부탁드립니다.
6. 네팔 이예신 선교사--다시 항암을 시작하자고 하네요 많이 두렵지만 함께 기도해 주시니 큰 힘이 되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7. 스웨덴 김명자선교사 채장암이하나님의은혜로 암세포가 다 없어졌다는 CT결과가나왔다고합니다.

10 월이 되며 인도네시아는 비가오는 계절인 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어김없이...

살롱 모두들 건강히 잘 지내시고 계신가요 코로나로 제한된 일상을 살고 있음에도 시간은 차곡차곡 지나 갑니다. 소식
지를 적으려고 하는데 지붕에서 들려오는 비 소리가 온 집안을 울립니다. 10 월이 되며 인도네시아는 비가오는 계절인
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은 비가 매일 강하게 오진 않지만 오후가 되면 어김없이 하늘이 어두워지고 일주일에 한두
차례 시원하게 쏟아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 속에서 우기와 건기가 필요 한 것을 알지만 개인적으로 우기가
되니 늦은 오후 동네를 걸으며 노을을 바라보던 시간 을 잠시 멈추게 된 것이 아쉽습니다. 또한 안타까운 것은 우기 때
마다 하수시설의 부족함과 사람들이 여기저기 버린 쓰레기로 인해 많은 비가 짧은 시간 내리면 여기저기 홍수가 생긴다
는 것입니다 건기에는 가뭄이 우기에는 홍수 나 산사태가 일어나는 이 땅 의 자연 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
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동역자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소식 나눕니다

교도소사역 ----코로나 감염의 위기 가운데 형량의 3분의 2 를 채우면 출소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교도소는 여전히 포
화 상태입니다 나가는 인원만큼 범죄한 사람들 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한 방에 30 명 정도의 인원이 생활하기에 잠을
잘 때 몸을 제대로 누일 수 없어 비스듬하게 누워 잔다고 합니다 수프라니 수시아트 안지 클라라 니꺼 자매들에게 월 2
회 비타민과 편지 말씀 양육지 등은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외부와 단절되어 방문자도 없이 지내는 시간이 답답하고 힘
들 거라 생각합니다 자매들의 영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자매들이 잠잠히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며 위기를 기
회로 삼아 영적 성장을 이루는 시간 보내길 기도합니다

마을 방문 및 개인교제---- 마을을 방문하며 아이들과 동네 아주머니들과 관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거리가 있
는 한 마을에서는 보통 친분이 있는 아주머니 한 분과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최근 아이들이 저를 둘러싸고 한국에 대
해서 저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아이돌 가수가 인기가 있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큰 건 보
통이지만 한국에 가고 싶다고 울기까지 한 아이는 처음이었고 2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놀고 싶은마음을 억누르고 제결
에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사귀어 지의 첫 친구 미아가 12 월에 출산
을 합니다 거리가 멀어 만날 수 없 지만 온라인으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아와 태아 가 건강하게 지내며 출산도 순
조롭게 할 수 있도록 기도 하며 상황이 좋아져서 미아가 사는 곳에 방문하여 아이를 위해 축복기도도 하고 마음껏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어 영어 교실---- 부족한 실력이지만 아이들에게 한국어와 영어를 가르치며 만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두 세명
의 아이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부모님께서 허락하지 않아 참석까지 연결되지는 않았습니 다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 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깊어지지 않음을 알기에 참석하는 아이들이 더욱 소중합니다 . 6 학년인 아벨과 리따는 중학
교를 가는 즈음에 타지역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기에 만날 때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이 급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 조금
씩 종교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아이들에게 지혜롭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스리 할머 니께서 돌아가셨습니 다 5 월부터 일주일에 한 번 씩 방문하여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스리 할머
니께서 안타깝게도 지난 9 월말에 돌아가셨습니 다 함께 사 시는 분이 없으 셔서 돌아가신지 2 , 3 일 후에 이웃분 에 의
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홀로 쓸쓸하게 마지막을 맞이하셨을 할머니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 다 소식을 듣고 장례
기간에 할머니 맥 으로 찾아갔습니 다 많은 가족들이 모여 문상객들을 맞이하고 계셨습니 다

아즈까 를 알게되다--- 인도네시아에서 살다 보면 어려운 분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습니 다. 제가 모든 분들의 필요를
채워드릴 수 없기에 기도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생활용품으로 때로는 재정으로 돕 기도 합 니 다 . 최근에 학
교 선생님이 일하 시며 사시는 지역에서 아이들을 개인지도 하시고 마을을 방문하시며 관계를 통해 복음을 전하시
는 L 선생님 부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귀하신 분들이셨습니 다 시간과 재정에 한계가 있음에 저 에게까지 이야기
가 전해졌습니다 특별히 도움을 요청한 부분은 7 살 아즈 까 의 필요였습니다 아즈까는 위와 장애 문제가 있어 정상적
인 배변활동을 할 수 없 기에 배에 튜브를 내어 배변활동을 한다고 합 니 다 또한 먹는 것이 부실하고 신체의 면역과 기
능이 떨어져 있어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걸거나 물건을 잡는 등의 행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부모님 모두 일
을 하 시 지만 일용직 일 이라 아즈까 에게 매일 필요한 우유 비타민 기저귀 밴드 등을 공급하기가 어렵습니 다 기도하
며 아즈 까 를 위해 정기적인 재정 후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즈 까 의 건강이 회복되고 매일의 필요가 채워 지길 바랍
니다 가족분들이 아직 믿지는 않으시지만 복음을 들으셨고 예수님 을 나누는 것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
다 L 선생님이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아즈 까 에게 읽기 쓰기를 돕기 위해 가정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계시는데 주님의
때에 가족분들의 마음이 열려 믿음의 씨가 뿌리내리고 자랄 수 있 기를 기도합니다

